

전문가 칼럼

윤리경영 방법의 딜레마; 제도를 넘어 사람을 키우자



김 기 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윤리적 세상을 위해 법과 규정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규정은 엄격 해진다. 여기서부터 윤리경영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엄격한 규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수고를 덜어주지만 도덕적 판단의 기회를 없애고, 도덕적 사고를 퇴화시킨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윤리경영 매뉴얼의 노예가 되기 쉽다.

우리는 동시에 준법의 역설(Paradox of Compliance)을 극복해야 한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준법의 이름으로 기회주의가 난무할 수 있다. 그러면 기회주의를 방지하는 또 하나의 규칙을 만든다. 즉 법은 많아지고 그만큼 법률지상주의에 의한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법적 비윤리의 그늘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기회주의가 난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치형 윤리경영의 딜레마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혜와 철학에 기반한 윤리경영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딜레마는 존재한다. 철학과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예외를 만들고자 하는 기회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층을 중심으로 법집행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윤리경영은 서민을 위한 통제수단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다.

전자는 낮은 길의 윤리(Low Road)의 문제이며 후자는 높은 길의 윤리(High Road) 경영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실제 윤리경영을 실천할 때는 이들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는 제도를 강조하고, 후자는 사람의 철학을 강조한다. 전자는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이고, 후자는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윤리경영이 성공하려면 매뉴얼만 지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윤리는 외롭고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윤리는 오늘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인생을 두고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규범의 배경과 의미를 자신의 인생철학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생활속의 윤리가 정착되어 갈수 있을 것이다.

법치형 윤리경영은 도덕적 해이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에 의한 제도적 접근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윤리경영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윤리담당자가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다. 즉, 제도 준수를 위해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윤리경영이 가능하리라 장담할 수 없다.

윤리경영도 이제 규칙과 인센티브로 만들어진 제도를 넘어 주인의식을 갖춘 청지기형 인간,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많이 키우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리가 문화가 되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조직은 이런 청지기형 사람을 대접하고 잘 키워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기업과 최고경영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윤리경영 위한 내부비리신고 위탁 '헬프라인' 도입 활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들은 반부패 청렴과 윤리경영을 위해 내부적인 고발시스템이나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 노출 등의 우려로 조직 내부에서 신고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부 대기업과 정부기관, 공기업은 중심으로 내부비리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의 운영과 관리를 외부 전문사에 위탁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경찰청의 경우 내부비리신고가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고, 한수원 역시 조직쇄신을 위해 헬프라인을 도입한 후, 원전비리 신고 등 내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점수 소폭 상승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산업정책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비전, 기업지배구조, 윤리·환경경영 등 8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평균 점수는 88.21점으로 전년대비 0.24점 상승했으며, 비전(95.24점), 윤리경영(94.16점), 고객(93.56점), 환경경영(93.29점) 등이 90점을 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역사회(70.57점), 지배구조(86.49점), 작업장(87.24점), 협력업체(86.08점) 등은 90점을 밑돌았다..

"영국 뇌물법(2010)" 번역서 발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뇌물법(2010년 4월 제정)이 3월 31일 한글로 발간됐다. 영국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이번 번역서 "영국 뇌물법(2010)"에는 영국 뇌물법과 이행지침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국내기업은 물론 영국에서 사업 중인 우리 기업에게도 배포하여 부패와 뇌물의 위험을 인식·예방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영국 기업의 절반만이 공급사의 윤리적 행위를 감시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제조업체들이 단순한 신뢰에 의존하여 공급업체에 대한 감시를 시행하지 않는 탓에 공급 사슬에서 노예 노동, 아동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공급사를 위험 관리 회사의 보고서에는 오직 51%의 기업만이 그들의 직접적인 공급업체의 윤리적 행위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노예 노동력, 아동 노동력,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사를 위험 관리 회사의 리처드 콜린스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공급 사슬에서 인력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 2014 연례 주주총회에서 ESG 안전 활발히 논의

지난 2월 28일에 열린 2014년 애플 연차 주주총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안전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안전의 가결 여부를 떠나, 국내 기업들의 주총 분위기와는 달리 지속가능경영 관련 안전이 주주총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것으로도 진일보한 수준으로 보인다. 팀 쿡은 CEO로 임명된 이후, 다수의 친환경 정책과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한 사용금지, 해외 생산공장의 노동환경 개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경영에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투자펀드, 개도국 기후-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덴마크는 녹색기후기금(GCF)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덴마크 기후투자펀드로 총 12억 크로네(약 2억 2천만 달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덴마크기후투자펀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개도국에 덴마크 기업의 시장 진출과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데, 정부 재정과 민간 연금투자, 기후와 에너지 분야의 덴마크 기업들이 합쳐서 기후와 에너지 분야의 수요가 높고 시장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용된다.



행사가
브리핑

제11회 윤경 SM 포럼 CEO 서약식 글로벌 윤리경영의 길을 묻다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윤리경영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윤경SM포럼 CEO 서약식이 개최되었다. 공공 및 민간을 초월하여 윤리가 경쟁력임을 다짐하고 서약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100인 선언'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전원이 윤리 서약패에 서약한 후 '윤경 SM 포럼 선언문 <우리의 다짐>'을 낭독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플랫폼으로서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였다. 또한 한국지멘스 김종갑 대표이사 회장의 윤경SM포럼 공동대표 취임식도 열렸다. 아울러 공동 주관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전문직 여성한국연맹(BPW)과 글로벌 윤리경영 및 평등문화에 앞장서고자 다짐 및 서약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당일 전문직여성세계연맹 Fredda Miriklis 회장도 참석하여 여성경쟁력 강화원칙을 강조하였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2003년 윤리적 기업 문화 확산과 지속경영 실천을 논의하는 다자간 포럼인 윤경 SM 포럼을 발족하였고 2004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CEO가 변해야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 하에 매년 CEO 서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회의 서약식에 약 500여명의 CEO가 서약에 동참하였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제약산업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의약품을 다루는 산업으로 특히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제약업체들은 리베이트 제공, 시험 결과 조작 등 여러 가지 비윤리경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약업계의 비윤리적 경영과 그에 대한 대응사례를 소개하여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 교훈을 삼고자 한다.

비뚤어진 매출 증대 방법, 리베이트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스캔들에 휘말려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란 정부가 약값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확보한 제약회사가 의사와 이윤의 일부를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처방약은 환자가 약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중간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사례 1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국내의 한 제약사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병원 규모, 목표 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지원하였다. 의사들에게 교육 콘텐츠 업체를 소개해 주고 15~20분 분량의 인터넷 강의를 하도록 하여 강의료 명목으로 강의 1건당 240만 원을 지급한 리베이트 방식도 이용됐다. 일견 합법적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의료가 제약회사 판촉비에서 공제되는 완벽한 리베이트였다.

사례 2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처벌과 제약업체의 자정노력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적발되는 제약업체는 이미지 타격은 물론, 과징금 또는 해당 품목의 일정 기간 판매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 연동 약값 인하' 정책에 의해 최대 20%의 보험 약가 인하를 받아들여야 한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일부 업체들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CP)를 선언하고 자율 준수 관리자를 선임하며 자정노력에 동참하기도 했다.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약사의 비윤리경영

제약업체의 비윤리적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약업체의 비윤리적 경영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제약 회사에게 있어서 윤리경영이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사례 1 심각한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의약품 판매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의약품에 대해 허술한 안전기준, 의약품 실험결과 조작, 가짜 약 판매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여드름 치료약, 진통제, 항생제 일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인도의 제약산업은 연간 수출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이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의 20%는 가짜 약이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제약업체의 성공적 윤리경영

제약업체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반대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면 사회에 큰 보탬이 되는 것 또한 제약업체이다. 우수한 몇몇 기업들은 제약업체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사례 1 CP 등급을 보유한 유일한 제약기업

한미약품이 제약업체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CP등급(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BBB'를 획득했다. 'BBB'는 "비교적 균형 있게 CP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도 양호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다. 한미약품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독립적인 CP관리팀을 운영하여 매달 CP규정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직원 포상과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리는 등 CP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경영 스터디

글로벌 CSR 컨퍼런스 2013 결과보고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윤리준법경영인학회가 2013년 11월 공동 개최한 '글로벌 CSR 컨퍼런스 2013 결과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CSR 컨퍼런스 2013 결과보고서는 기업들이 반부패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시대에 맞게 CSR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인권과 친환경 도전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반부패 노력을 통한 신뢰 구축

'위임 받은 권한의 사적 이익을 위한 남용'이라고 정의되는 부패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잠먹으며,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해친다. 지금까지 반부패 부문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차지하곤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책정된 초국가적인 반부패 기준은 이러한 분위기를 점점 강화시키고 있다.



3P 4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 번째 시간으로 효과적인 '윤리강령 제정과 윤리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윤리경영의 기준이 되는 기업윤리강령

윤리강령은 기업신조와 경영이념, 그리고 종업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총체적 윤리적 관리와 실천을 위해 기업구성원 행동의 기본방향을 명시한다. 윤리강령은 최고경영자 및 종업원의 윤리적 · 도덕적 신념과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 내 종업원들의 작업환경에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강령 사례 : 존슨앤존슨의 '우리의 신조(Our Credo)'

우리의 첫째 책임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자인 의사, 간호사, 환자와 자녀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둘째 책임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와 같이 근무하는 모든 남녀 직원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의 셋째 책임은 우리가 생활하고 근무하고 있는 지역 사회는 물론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의 마지막 책임은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다.

-기업윤리강령의 구성과 내용 요건

윤리강령의 내용은 기업의 경영정책 결정과 경영 결과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기업경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제1차 이해관계자(주주, 종업원, 경영자 등), 제2차 이해관계자(고객, 경쟁자, 납품업자, 지역사회 등) 및 제3차 이해관계자(정부, 환경, 여론 등)로 나눌 수 있다.

☞ 3면에서 이어집니다.

CSR & 위기 관리

아무리 위기 관리 프로세스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SR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CSR을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야 하며, 'Y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인권, 노동 & 사업

사업과 인권은 종종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보호하라, 존경하라, 그리고 개선하라"는 UN의 홍보와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과 같이, 수년간 인권과 노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된 기준들은 기업들이 현재와는 다르게 경영하기를 요구해왔다. 다국적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과 노동에 관련된 도전 과제는 복잡해지고, 업무 현장, 공급 사슬, 시장, 지역 사회, 지배구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 & 친환경 경영

현대세계는 쉽지 않은 친환경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년간,

기업윤리강령의 구성과 내용

구성	윤리경영의 기본적 골자
기본정신	착한 기업, 사회적 가치창조, 기업시민
고객	고객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성실, 신의, 만족
임직원	임직원은 자산, 종업원의 권리, 의무
주주	정당한 투자수익보호, 공평, 평등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공생, 선량한 기업시민
경쟁자	공정경쟁, 공평한 대우
임원	임직원의 명예는 회사의 명예, 개인보다도 회사이익 우선
환경	환경친화, 공생관계
국제거래	국제적 기업시민, 평등 · 공평 대우
처벌	윤리성 판단기준, 고발의무, 개인의 책임, 처벌

윤리경영 실천의 길잡이, 윤리가이드

윤리가이드에는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종업원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종업원행동지침'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종업원 행동지침 문답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업원이 행동지침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또는 생산, 판매 현장에서 흔히 부딪치는 문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여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설을 붙인 것이다.

사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청렴한 약속 + 청렴 더하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윤리경영 가이드북 '청렴한 약속 + 청렴 더하기'에는 윤리경영 체계와 청렴의 필요성, 행동강령 및 위반 사례, 내부공익신고제도, 자기부패 진단,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자답, 청탁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함께 실어 임직원이 부정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손쉽게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 고용정보원의 『청렴 1번지, 한국고용정보원』

윤리경영 Q&A,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화와 고사성어,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을 함께 실었다. 특히 선물과 뇌물 구별법, 자기부패 진단,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자답, 의사를 결정할 때의 10대 점검 사항, 뇌물대처 방법 5단계, 청탁거절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환경적 위기와 친환경 도전으로 인해 생겨나는 기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향상된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 관련 상품, 서비스, 기술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 증대
- 기업과 브랜드 명성 구축
- 직원과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 지속 가능한 사회와 시장 창출에 도움



빅데이터 시대의 CSR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되는 빅 데이터로 인해 이제는 일반 조직들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서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 데이터에 따라 즉시 처리하는 사업 모델의 창출을 이뤄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사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 부패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란 무엇인가요?

A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순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데, 신뢰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만큼 세계 여러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 갤럽의 설문조사 등 7~8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고, 갤럽의 설문조사는 대상 국가들의 기업인, 정세분석가, 언론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들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공조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 횡령, 반부패 정책의 강도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7개 자료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자료에 올라 있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냈고, 2012년부터는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세분화되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를 통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목표는 국가적 차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를 정부, 공공, 경제, 시민사회로 확장시키고,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패지수를 조사해 현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반부패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된 이래로 10여 년간 4점 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에 5점으로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점수 기준이 처음 적용된 2012년에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 176개국 중 45위를 기록해 이전 해에 비해 2단계 하락했고, 2013년 우리나라는 55점을 받아 177개국 중 4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4월

|| 2014 GS1 헬스케어 국제컨퍼런스

의약품 오남용 방지 솔루션에 대해 논의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별 시범사례를 공유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행사 주관 : GS1 Healthcare)
- 일시 : 2014년 4월 1일(화)~3일(목)
- 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2014 국제 그린에너지 컨퍼런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동향을 알아보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폐자원의 에너지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예정

- 주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일시 : 2014년 4월 2일(수)~4일(금)
- 장소 : EXCO, 대구광역시



|| The Global CSR Summit & Awards 2014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하에 CSR리더십, 환경, 지역사회, 근무환경 등 부문 우수 기업들에 대한 시상식과 대표자들의 연설이 이루어질 예정

- 주최 : The Pinnacle Group International Singapore
- 일시 : 2014년 4월 3일(목)~4일(금)
- 장소 : Laguna Bali, Indonesia

|| The 5th Annual International Corporate Volunteerism Conference

프론티어 시장에서 국제적인 기업 자원봉사주의와 글로벌 프로보노 활동이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공유가치 달성을 위한 방법 논의 예정

- 주최 : Pyxera Global
- 일시 : 2014년 4월 7일(월)~8일(화)
- 장소 : Washington D.C, USA

* 프로보노 :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

기업윤리브리프스

Q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적 차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를 정부, 공공, 경제, 시민사회로 확장시키며 부패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하는 지수는 무엇인가?

1) 국가경쟁력지수 2) 투명성지수 3) 지식경영지수 4) 부패인식지수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1번, 기업 영업이익률 증대**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이성정님, 정태홍님, 김수영님, 이현식님, 이광섭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수적천석(水滴穿石)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

**보다 신속한, 보다 상세한 윤리경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기업윤리브리프스를 웹진(e메일)과 브로슈어(웹진 요약본)로 발간하여 기업 관계자, 학계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웹진 신청방법

- ▶ did911@korea.kr 로
소속, 성명, 이메일주소를 보내주세요
- ▶ 제작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02-360-2772, 2774)주세요
- * 단체 신청 가능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